『초 · 중 · 고등학교 사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을 통해 본 학교도서관*

박 금 희**

目次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사업의 개요
2.1. 대상학교의 자격
2.2. 대상학교 선정기준
2.3. 사서보조원 모집 방법
2.4. 사서보조원의 자격
제 3 장 각급 학교도서관에서의 활동
제 4 장 결 론

제1장 서론

'98년과 '99년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창립되었고, 협의회의 첫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를 진행했으며,『서울시교육청』과 『한겨레신문사』가 함께하는 '21세기 학교에서 준비합시다' 라는 교육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이 비중있게 꾸준히 기사화 되어 거론되었다. 게다가 '98년 10월부터는 '사회의 책을 학교로' 라는 제목으로 '99년 4월까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에 특별한 지면이 할애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10회분의 연재기사가 '98년 10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게재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21세기 책으로 엽시다』라는 학교도서관 매뉴얼이 20만부가 제작되어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원하는 개인에게 무상 배포되었다.

* 이 글은「초 · 중 · 고등학교 사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사업평가회(1999.12.8.)에서 발표된 내용임.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업담당

이러한 활동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이다. '93년 대학입학시험이 수학능력시험으로 그 유형이 바뀌면서 자료활용을 요구하는 자료탐구학습과 열린수업이 각광받게 되었다. 기존의 객관식 문제와 단답형에 길들여진 학생과 교사들은 신속하게 자료중심, 학생중심,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자료원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뜻 있는 많은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했고, 지난 1년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 문의가 빗발쳤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활동은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지역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숭의여대, 경기대, 덕성여대, 부산지역은 부산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광주지역은 전남대 학생들이, 포항지역은 방학동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경남 · 마산까지 전국의 많은 지역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활동이 확산되었다.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학교를 선별하여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일들이 이제는 억단위의 재정을 지원받은 조직화되고 구체화된 사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초 · 중 · 고등학교 사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지난 3월 25일부터 서울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한정을 둔 것은 사업추진본부의 활동범위와 사업의 집중적인 관리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제2장 사업의 개요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3차 제안사업을 공모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일찍부터 시작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하여 '사서보조원 수요 파악'을 서울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12월 초에 실시 하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44쪽의 제안서를 만들었다. 1월 26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 간사 2명이 3월 5일 우리 협의회 사무국이 있는 한국도서관협회로 실사를 나왔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원으로 무사히 실사를 마치고 3월 18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최종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챤 아카데미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사회 각계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98년 6월 출범했다. 『한겨레신문사』와 『문화방송』,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실업대책사업을 벌여 하루빨리 실업자를 근로자로 바꾸고자 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본 사업의 지원금은 4억1천7백8십8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다. 거의 모든 행정적인 기준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턴사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사서교사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 소재 초 · 중 · 고등학교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사서를 파견함으로써 열악한 학교도서관 구조 및 체제 정비를 개선하고, 학교도서관 내실화 및 전산화를 통한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며,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으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데 있다. 기존의 전산보조원이나 공공근로로 파견된 사람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로 마찰이 있어서 본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나타냈다. 유명무실했던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만들고 전산화 작업까지는 업무량이 많은 이유로, 기존의 1학교에 1인을 파견하는 형태가 문제점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본 사업은 분류에서 전산화 작업까지 약 2-3달 동안은 2명의 사서가 1학교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렇게함으로써 도서관 정비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사서들도 학교에 적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즉 장서수와 기타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1, 2단계 학교를 구분하고 1단계 학교는 4월부터 2명이, 2단계 학교는 7월부터 1명의 사서가 파견된 것이다. 이 방법에 대한 피드백 효과는 중도탈락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 대상학교의 자격

사서를 원하는 학교는 많은데 파견될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파견될 인원은 전원이 사서자격증 소지자이고 교사로서의 인성은 면접을 통해 점검하였다. 그러므로 그보다는 학교의 선정이 본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는 판단이 들어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의지와 여건(예산 및 지원정도)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다. 또한 본 사업이 학교도서관계에서만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고 교육단체, 학부모단체들도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이므로 동참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교육단체 중에서는『서울시교육청』초등 장학사와 중등 장학사, 학부모단체 중에서는『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학부모연대』사무국장,『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간사등이 우리 협의회와 함께 선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지난 3월에 '사서보조원 신청서'를『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하여 공문 시행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실태 조사서'와 함께 미리 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가 있는 학교로서
② 도서관 공간과 1988년 이후 발행된 책이 1,000여권 이상이고
③ 올해 도서구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하며
④ 도서관 전산화에 필요한 경비(약 100만원)가 지급 가능해야 하고
⑤ 학부모이든 학생이든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여
⑥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에 가중치를 두어 선정하였다.

2.2. 대상학교 선정기준

신청서를 제출한 300여개의 학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비율을 고려하여 수를 정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34개교, 고등학교 24개교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실태 조사서'를 수치화한 점수를 선정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초등학교는 기초점수 순위 내에서 사립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장서수 2,000권 이하인 학교와 도서실 전산화가 완료된 학교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초점수 등위 외 학교 중 독서시범학교와 장서수 5,000권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였다.

중학교는 기초점수 순위 내에서 도서실 전산화가 완료된 학교와 장서수가 1,500권 이하인 학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초점수 등위 외에서 장서수가 3,000권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였다.

고등학교의 기준은 기초점수 순위 내에서 장서수가 1,000권 이하인 학교와 사서교사가 임

용되어 있는 학교는 제외하였다.

2.3. 사서보조원 모집 방법

지원금에 있어서 홍보비가 전혀 없는 까닭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그래서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에 모집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도서관메일링리스트,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넷츠고 등 통신에 모집광고를 게재하였으며,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문화일보에서도 본 사업 내용을 보도하여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왔다. 서류합격자 176명중 면접을 통하여 100명의 사서보조원을 선발하였고, 나머지 인력은 인력 POOL로 구성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28학교, 중학교 25학교, 고등학교 16학교에 1명의 사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4. 사서보조원의 자격

'사서보조원' 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초기부터 많은 고민을 하였다. 자격증을 가진 사서들이 일선학교에 파견되어 해야하는 업무가 결코 보조 업무일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일선학교에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파견된 사서에게 사서교사 내지는 다른 명칭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교사와 대등한 관계로 설정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마찰이 너무 많을 것을 염려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현행 학교들이 전산보조원, 영어보조, 또는 공공근로 형식으로 외부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사례를 따르는 것이 학교에서 거부감을 갖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호칭으로 인해 업무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은 호칭을 좀더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서보조원의 자격요건은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로 구직활동중인 실직자 및 미취업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선발과정도 1차 서류심사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폈으며, 2차는 면접을 실시하였다. 학교에 근무해야하는 까닭에 비록 정교사는 아니지만 사서교사로서의 인성과 열의를 무엇보다도 많이 고려하여 심사하였다.

제3장 각급 학교도서관에서의 활동

원하는 학교급과 출퇴근 거리, 그리고 사서선생님들 각자의 성향과 학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4월 19일 사서선생님들은 각자의 학교로 출근하였다. 그러나 우리 협의회가 지원한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지 못하고 서류상 점검과 전화통화만으로 파악한 것이었으므로 인해 첫날의 광경은 우왕좌왕이었다. 학교도 단순히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한사람이 배치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전산화니 기타의 경비문재는 고려하지 않은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만을 원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학교로 재배치하거나 학교가 예산을 확보해 수용하기도 하였다.

업무 진행정도는 많은 학교가 비슷해서 사서선생님들은 중간 중간에 실시하는 2차 전산화 교육, 3차 독서지도 교육에 참석하셔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셨고, 각 학교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서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서지도 교육을 통해 요즘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맞춘 독서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사서선생님을 배치한 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둘러본다. 도서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도서관의 위치를 꼭 물어 도서관의 인지정도를 가늠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방향만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직접 함께 가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럴때면 도서관이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 흐뭇해지곤 한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이것저것 둘러보고 가끔은 조언도 한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것에 놀라고, 사서선생님들이 그 상황에 맞게 열심히 일한 흔적에 놀라기도 한다. 모든 학교를 다 둘러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위안으로 남겨둔다.

사업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학교들이 계속배치 여부에 대해 물어온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음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간단체가 학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목적의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어찌하겠는가?

많은 교장선생님과 담당교사들이 전화를 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독서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아이들에게 억지로 책을 읽히지 않아도 스스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발견하셨다고 흐뭇해하신다. 그러면서 도서구입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 또 다른 교장선생님께서는 현장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기타 다른 교과의 보조 선생님들보다, 정식교사 발령이 당장 어렵다면 좀더 장기적인 기간으로 사서선생님을 정책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왜 항상 사서교사는 없느냐고 우리에게 항의를 하신적도 있었다. 다른 누가 대신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협의회에 고마움을 표시해 주신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사업의 주최로서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원하던 사업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본 사업의 지원금 출처를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이라는 곳에서 국민성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에 그제서야 정확히 이해를 한다. 그리고 본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사업시작 전과 후에 본 사업에 대해 관계된 많은 분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진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탐구하고 자료를 구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는 근본 목적을 공감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한 사서선생님들은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교장, 교감, 일반교사들, 학생들과의 관계 만들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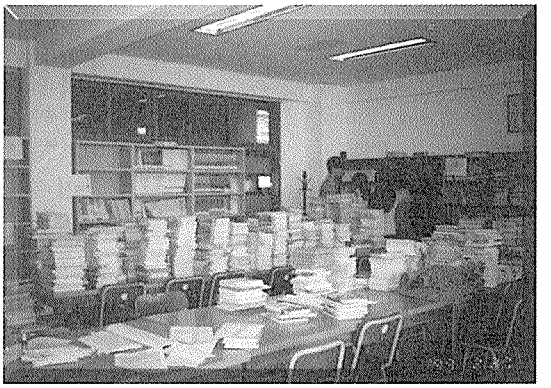
제4장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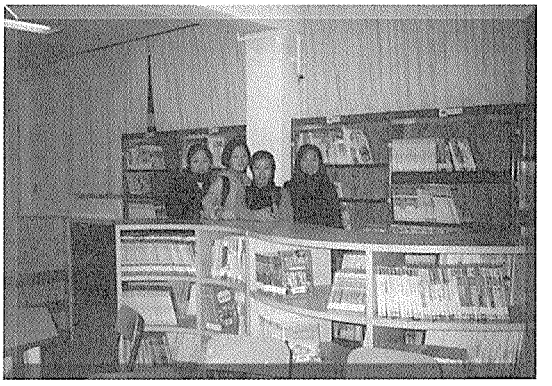
이 사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

리 협의회의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수원여성회』에서 19개 학교,『사단법인 안산상록수문화사랑회』에서 10개 학교,『군포 경제실천연합회』에서 20개 학교,『광주 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에서 30개 학교에 학교도서관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곧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요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곳에서 학교도서관 이야기를 한다. 그야말로 학교도서관이 때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요즘 각 학교들이 자료활용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자료를 찾으러 공공도서관, 서점등으로 몰려다니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찾는 학생들로 북적거려 일반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서점은 자료를 옮겨적는 아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들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자료를 스스로 찾아 공부하라는 주문만 하고 그 환경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을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 분위기와 독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들은 스스로 읽고 찾고 공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제 학교도서관이 그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서보조원이 파견된 학교명단〉

가산중 갈현초등 강북중 강신중 경수중 경수초등 경신고 공항초등 광희초등 구남초등 금천고 금호초등 남서울중 당산중 당현초등 대곡초등 대신고 도성초등 동명여고 동의초등 동작고 둔촌고 등원중 명덕초등 문찬중 반포중 방일초등 방학중 방화중 백암고 봉림중 북서울중 사당초등 삼성초등 삼양초등 상문고 서강초등 서운중 서울국악예고 서울사대부고 석관초등 선덕고 성남고 성동여자실업고 성산중 성수초등 성재중 세곡초등 송정중 송천초 송파초등 수도여고 수유중 숭덕초등 숭문고 숭의여고 신구중 신명초등 신서중 신현초등 안산초등 안천중 압구정초등 언남초등 연천중 영도초등 영풍초등 오남중 원효초등 월천초등 윤중중 이문초등 자운초등 장승중 장충여중 장훈고 전농여중 전농중 정목초등 중경고 중랑중 중목초 중앙고 중원중 중화중 창경초 창원초등 창일중 청량초등 풍납초등 한강전자공예고 한성여고 한천중 행당초등 현대고 화계초등 휘경여고 (총 97개 학교)